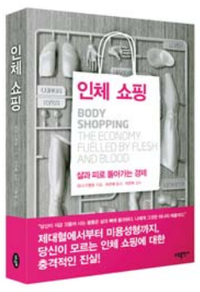

'인체쇼핑' 도나 디켄슨 지음

신체 일부를 쇼핑하는 시대… 윤리는 어디에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처럼 얼굴을 내민 연예인을 볼 때면 탐정이 되곤 하는 여성들, 무척 많다. "어머, 턱을 깎으니 몰라보겠네. 근데 말이 좀 어눌한 게 수술 때문인가.", "양쪽 눈 앞뒤로 트고 코도 꽤 높아졌는데, 콧구멍은 다 보이네"라며 중얼거린다.

급기야 "보톡스나 앞트임, 뒷트임 정도는 시술이라는데"하며 남편이나 부모, 남자 친구를 흘깃 쳐다본다. 한발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내 자신을 찾아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세상에 평생 동안 내 보이는 게 얼굴이고 내 자신인데 좀 나은 자신을 찾는다는 데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등 '나도 하겠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반박할만한 썩 괜찮은 말도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모른 척하거나 말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괜히 무시하는 경우, 많지 않은가.

그럴 때 읽어볼만한, 권할만한 책이 도나 디켄슨의 '인체 쇼핑'(Body Shopping)이다. '살과 피로 돌아가는 경제'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성형에 대한 최근 사회 분위기를 한번쯤 되돌아보게 한다.

미용 성형이 보다 나은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미용 성형이 진정한, 독창적인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외치면서도 비슷비슷한 미인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보다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한 미용 성형이 자신의 진짜 전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할인 가격으로 지방 흡입이나 뱃살 제거 수술을 해주고 일주일 동안 '사파리'와 진통제를 제공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미용 성형수술과 휴가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도 솔깃하다.

물론, 책이 미용 성형만을 주로 다뤘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제대혈부터 성형까지 신체 일부를 '쇼핑'하는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영국 의료 윤리학자인 저자가 서문에 "인간의 몸이, 유전자와 인체 조직이, 소비재로,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움직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듯 취지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책은 난자를 얻기 위해 벌어지는 장기 매매 등 범세계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스페인에서 돈에 쪼들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1000유로를 받고 난자를 팔라는 광고문이나 미국에서 키, 얼굴, 심지어 SAT(대학입학시험) 점수까지 확인하며 난자 기증자를 물색할 수 있는 현실과 인간의 뼈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면서 과학적, 철학적,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또 방대한 생명공학 이론을 토대로 줄기세포 연구, 게놈 특허 경쟁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련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뒤흔드는 '프랑켄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기의 무한재생과 영원한 젊음을 갈망하도록 부추겨지는 시장주의 사회에서 생명공학이 내놓을 '신비의 영약'에 기대만 부풀게 돼 윤리 문제에 둔감해지는 등 방향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책이다. 〈소담출판사·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행복하고 따뜻한 '집짓기'… 함께 세상보기

'제가 살고 싶은 집은'

이일훈·송승훈 지음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을 읽는 내내 행복하고 따뜻했다. 기존의 건축 관련 서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느낌이었다.

이 책은 건축가 이일훈과 국어교사 송승훈씨 이메일로 주고 받은, 집짓기에 대한 기록이다.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고받은 편지가 A4종이로 208쪽.

두 사람의 집짓기는 집에 대한 글쓰기로 부터 시작됐다. '송선생님은 어떤 집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라고 이일훈이 질문을 던졌고, 송승훈은 자신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 편지를 통해 건축가는 그의 삶의 모습까지 읽어내며 함께 집을 지어나갔다.

'번듯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건축주 송씨는 불편하게 살기, 밖에 살기, 늘려살기가 담긴 '채나눔'을 주창하는 이일훈의 건축 철학에 동감, 설계를 의뢰했다. 지독히 현실적인 기술과 경비 문제로 '인문학적 소망에 대한 물질적 구축'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건축가는 집을 완성해냈다.

이 책은 단순히 건축 관련 서적으로 읽히지 않는다. 물론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주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집짓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더 마음이 간다.

이일훈씨가 직접 지은 집 이름은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낡은 책이 있는 거친 돌집'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에서 따온 이름이다.

책을 읽고 나면 당연히 이 집을 찾아가고 싶어진다. 다행히도 미리 연락해서 몇가지 지킬 것을 약속하면 누구에게나 보여준단다. 글에서 느낄 수 있는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서해문집·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외향성이 대세? 세상을 바꾸는 건 '내향성의 힘'

'Quiet'

수전 케인 지음

'중력의 법칙', '상대성의 법칙', 쇼팽의 '녹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피터팬', '찰리 브라운', 영화 '쉰들러 리스트', 'E.T.', '구글.'

수전 케인이 '콰이어트'(Quiet)에서 내향적 사람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들이다. 책은 '훌륭해지려면 대담해야 하고 행복해지려면 사교적이어야 한다'는 등 외향적 사람들이 대세인 분위기에서 내향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향성 숭배의 부작용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2012년 '세계 지식인의 축제'로 자리잡은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 컨퍼런스 개막식의 마지막 연사인 자저는 책을 통해 '내향성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왜 사회가 외향성을 롤모델로 떠받들고 내향성을 '숨기거나 벗어나야 할 것'으로 몰아세우게 됐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는 한편, 간디, 아인슈타인, 고흐,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즈니악 같은 조용하고 이지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남다른 성과를 내도록 하고 위대한 통찰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외향성과 내향성을 우월 관계가 아닌, 다른 성향으로 보고 학교, 기업 등 조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RHK·1만4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2년 정주영을 다시 찾다

'정주영 희망을 경영하다'

조상행 지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2004년)',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경제인 분야·2008년) 1위', '2010년에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기업인 1위.'

맨손으로 시작해 '현대그룹'을 만든 경영인 정주영.

'희망을 경영하다'는 1966년 현대건설에 입사, 18년간 지근 거리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해온 조상행씨가 바라본 정주영에 대한 이야기로, 무엇이 그를 한국 경제 대표 인물로 오르내리게 하는 지를 풀어내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 '눈을 돌려 세계를 바라보다' 등 6부로 나눠 정주영의 경영 리더십과 통찰력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바이북스·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읽다

'제노사이드'

다카노 가즈아키 지음

여름, 서늘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스릴러 장르의 소설책. 인류 종말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음모를 추리 스릴러와 SF 기법을 통해 풀어나가는데, 꼼꼼함에 스케일까지 커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든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약학 대학원생과 불치병에 걸린 아들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피그미족 암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용병,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역사에 반복되며 벌어지는 제노사이드(대학살) 양상을 작품 속에 녹여 내면서 '과연 인간은 서로 죽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황금가지·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 많은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지음

수없이 쏟아지는 여행 관련 에세이 시장에서 시인 이병률의 '끌림'은 독보적인 스테디 셀러다. 그의 또 다른 여행길에 동참하고 싶은 이들은 많았지만 그는 좀처럼 틈을 내주지 않았다.

이씨가 7년만에 새로운 여행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를 펴냈다. 인도, 루마니아, 삿포포, 파리, 방콕, 몽고, 예멘 등 80여개국의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글은 여행지의 볼거리를 예쁘게 찍어낸 사진이 싣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보통의 여행서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소소한 개인 감정을 일기처럼 풀어내는 그런 책들과도 차별화 된다.

'심장이 시켰다'라는 첫 챕터부터 그의 글의 갖고 있는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글을 읽다보면 오히려 이국적인 '장소'는 사라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내가 있을 뿐이다.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은 글만큼 어떤 땐 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달·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은닉='타워', '안녕, 인공존재!', '신의 궤도' 등으로 한국 SF문학계의 총아로 부상한 배명훈씨의 두 번째 장편소설. 킬러인 주인공이 조직으로부터 제거 지령이 내려진 첫사랑 은경을 구하기 위해 옛 동료인 정보분석가 조은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한다. 영화감독 박찬욱이 "SF소설은 작가에게 거대한 관념의 조탁 능력을 요구한다. 논리와 상상력 못지않게. 순문학 못지않게. 이만한 지성의 소유자가 한글로 장르소설을 써주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극찬했다.

〈북하우스·1만2000원〉

▲한국배우 100인의 독백=서울연극협회가 제 33회 서울연극제를 맞아 100명의 배우가 나서 지금껏 출연했던 작품 중 가장 기업에 남는 독백 대사,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한 '배우 100인의 독백-모노스토리 1'을 책으로 엮어냈다. '모노스토리'는 독백을 뜻하는 모놀로그(monologue)와 인생사(life story)의 합성어로 독백과 이야기를 합친 새로운 공연 형식. 권성덕, 오현경, 박정자, 박웅, 남명렬, 이남희, 길해연, 이호성씨 등 무게감 있는 배우 40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들녘·1만3000원〉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청소년기에 꼭 알아둬야할 정신의학적 지식은 뭐가 있을까. '도시심리학'의 저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가 모두 5장으로 나눠 뇌의 기능과 정신

문제들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교독서평설'에 2년간 연재한 원고를 모아 다듬고 새롭게 정리해 출간한 것으로, 청소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 관리법 등도 담겼다. 〈해냄·1만3000원〉

▲철학콘서트 3=광주출신 저자 황광우씨가 낸 철학교양서. 80년대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와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을 써 화제가 됐다. 동·서양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과 생각을 일화와 전기, 다양한 비유와 맛깔스런 이야기로 풀어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경성탐정 이상='훈민정음 암살사건'의 저자 김재희씨의 신작 소설. 천재 시인 이상을 주인공으로 한 탐정소설이면서 현대적 감상이 묻어나는 시대극이기도 하다. 이상의 외모에 착안, 경성을 배경으로 박제된 천재 시인을 낭만과 퇴폐라는 이중적 얼굴을 가진 인물로 생생하게 되살려낸 작가의 재기발랄함이 눈길을 끈다. 〈시공사·1만3000원〉

▲레츠 시네마 파티? 뚱파리!= 2008년 영화 '뚱파리'를 연출해 60여곳에 이르는 세계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24개의 상을 받아 한국 영화사에 굵직한 점하나를 찍은 감독·배우 양익준과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의 대화록. '뚱파리'의 폭력에 얽힌 미학적 진실과 영화인으로서의 고뇌와 경험들을 풀어내고 있다.

〈알마·1만6000원〉

어린이 책꽂이

▲사춘기가족=도시를 떠나 시골로 간 귀촌 가족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담은 동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재미라 믿는 소설가 엄마, 사진가 아빠, 할머니,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 열세살 사춘기 소녀 단오 등 5명이 힘겨운 인생의 성장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재미있게 엮었다.

〈한겨레아이들·9000원〉

▲안녕, 놀라운 나의 몸=몸의 기능과 역할을 쉽고도 간결하게 알려주는 과학책. 주인공 보리스의 하루 일과를 들려주면서 주요 신체 기관들의 역할을 간결하게 담아냈다. 돌림판·플랩·렌티큘러 등 다양한 기법과 장치를 통해 입체적인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공주니어·1만5000원〉

▲종이 아빠=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동화를 읽어주는 등 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함께 놀고 웃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이상형 아빠'를 통해 이세상 모든 아빠의 마음을 전한다. 일에 쫓겨 서둘러 출근했다 야근에 회식에 밤 늦게 들어와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는 아빠들. 모처럼 시간을 내 자녀들에게 읽어줄만한 책이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세계도시파노라마 5:올림픽=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아이들의 올림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책. 고대 올림피아에서 시작된 올림픽 기원, 역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담았다. 올림픽에서 펼쳐졌던 감동적, 극적 순간도 생생하게 담아냈다. 〈국민서관·1만3000원〉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어른과 아이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의사 소통 문제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의사 전달이 서툰 어린 아이와 아이의 말을 듣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어른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아르헨티나 아동·청소년 도서협회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빨강·녹색 등 알록달록한 그림이 돋보인다. 〈어린이작가정신·1만원〉